▲케네디 미스터리 - 존·F·케네디전대통령 암살에 관한책「대 반역」을 펴낸 작가 해리슨·리빙스턴(왼쪽)과 로버트·그로든이 케네디의 머리사진과 검시당국이 제시했던 두개골 X - 레이 사진을 비교하고있다. 이들은 사진에서 케네디의 뒷머리 오른쪽부분이 날아간 점으로 봐 총탄이 앞에서 날아온 것이 분명한데, 검시당국 X - 레이는 머리앞부분이 날아간 것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말했다. 〈워싱턴 - UPI〉

## 사진으로 본 오늘의 뉴스

『빨리 나아야할 텐데』 - 심장수술로 입원해있는 코미디언 루실·볼의 젊은시절 초상을 화가 조지·파머가 마지막 터치로 완성하고 있다. 그는 이 초상화를 오는 5월 6일 「쉐이스 버팔로디어터」에서 그녀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런 수술로 전달식 날짜를 다시 잡아야할 것같다고. 〈버팔로,뉴욕 - UPI〉